

2019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약의 정경 안에서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메시지 10

사람-구주의 승천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성경: 눅 1:78-79, 2:8-14, 32, 7:41-42, 50,
10:25-37, 15:3-32, 17:20-24, 24:27, 44-53

- I. 사람-구주의 승천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자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원자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창조와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그분의 취임이었다 — 눅 24:44-53, 행 2:36, 히 2:9, 12:2.
- II.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죽음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곳인) 음부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움직이는 곳인) 땅과 (사탄과 그의 어둠에 속한 능력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행동하는 곳인) 공중과 (사탄이 갈 수 있는 곳인)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다 — 엡 1:20-21, 4:8-10, 히 4:14, 7:26.
- III. 승천하시고 초월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향한 전달이 있다(엡 1:19-23). 그분의 뛰어난 전달은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포함한다(엡 1:3-14).
 - A.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전달은 우리를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결 안으로도 이끈다. 이러한 초월하신 그리스도와의 연결 안에서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뛰어넘고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한다 — 엡 1:21-23.
 - B.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옮겨 부으시기 위한 것이다 — 엡 1:10, 19, 22-23.
 - C.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열 두 가지 신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으로 이끈다 — 빌 1:19.
 1. 모든 것의 주님 — 행 2:36 상.
 2. 하나님의 그리스도 — 행 2:36 하.
 3. 모든 통치자들의 영도자 — 행 5:31 상.
 4. 구주 — 행 5:31 하.
 5. 대제사장 — 히 4:14-15, 7:26.
 6. 보혜사 — 요일 2:1 하.
 7. 중재자 — 히 7:25.
 8. 새 언약의 중보자 — 히 8:6.
 9. 새 언약의 보증 — 히 7:22.
 10. 생명 주시는 분 — 요 10:10 하.
 11. 위로하시는 분 — 14:16-17.
 12. 어린양-하나님 — 계 22:1 하.

IV.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있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 히 8:2, 눅 4:18-22.

- A. 그리스도는 과거에 우리를 섬기셨고,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시며, 장래에도 우리를 섬기실 것이다 — 막 10:45, 눅 22:26-27, 12:37, 비교 눅 9:54-56, 19:10.
- B.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에서 계시된 것처럼 승천 안에 있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면들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하여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1. 그분은 높은 곳에서 오는 돈는 해이시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 눅 1:78-79.
 2.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분으로서 타락한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 눅 2:8-14.
 3.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시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 눅 2:32.
 4. 그분은 자신을 돈 빌려주는 사람에 비유하셨고, 그분에게 빛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탕감하시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 — 눅 7:41-42, 50.
 5. 그분은 자신을 타락하고 율법으로 매맞은 죄인을 동정하며 돌보시고 그 영과 신성한 생명으로 치료하고 그를 교회 안으로 옮겨 놓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묘사하셨다 — 눅 10:25-37.
 6. 그분은 양을 찾는 분으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세상이라는 광야로 오셨다 — 눅 15:3-32.
 7. 그분은 돌아온 죄인이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도록 준비된 제일 좋은 의로운 겉옷이시다 — 눅 15:22, 렘 23:6, 고전 1:30.
 8. 그분은 살진 송아지이시며 믿는 죄인들이 내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 공급을 위한 뿔이시다 — 눅 15:23, 고전 1:9.
 9.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씨로 뿌려져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하신다. 그러한 왕국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이들 속에 있다 — 눅 17:20-24, 막 4:3, 14, 26, 요일 3:9, 롬 14:17.
 10. 그분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이 회개를 통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도록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다.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며 그분은 구약의 중심과 내용이다 — 눅 24:27, 44-47.
- C. 승천 안에서 사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 안에서 사는 것이며 우리의 혼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늘들에 계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엡 2:22, 창 28:12-17, 요 1:51, 계 4:1-2, 히 4:12.
- D. 우리는 반드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우리 자신을 감추는 법,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워서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 — 시 91:1, 90:1-11, 요 16:33.

V.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있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풍성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輦)',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동 수단, 그리스도의 수레, 그리스도의 '자동차'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아 3:9-10, 비교 고후 2:12-17.

- A.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된다. 그 결과 우리의 외적인 구조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인성이 되고 우리의 내적인 장식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된다.
- B. 우리의 솔로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을 위한 연으로 만드신다. 우리의 책임은 단순히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 요 21:15-17, 시 110:3.
- C. 우리의 내적 존재는 '사랑으로 입혀져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성으로 갖는 영역 안에 있도록 보존시켜줄 것이며 우리의 인성이 그분의 강권하는 사랑 안에 있도록 지켜줄 것이다 — 아 3:10, 고후 5:14.

- D. 우리가 개인적이고 애정어리며 사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는 파쇄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그 기동은 은이요)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바닥은 금이요)과 우리 속에서 생명 주시는 영의 다스림인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자리는 자색 담이라)로 개조된다 — 비교 롬 8:28-29, 고후 4:16-18.

VI.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있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는 기능을 발휘하고 계신다 — 히 7:25-26, 8:1-2, 비교 행 6:4.

- A. 그분은 교회들을 보살피며 보양하시는데 이것은 교회들을 돌보시기 위한 것이다.
1. 그분은 심지들을 정리하시고 기름을 더하심으로써 교회들을 보살피시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신다 — 계 1:13, 출 25:38, 30:7, 비교 속 4:12-14.
 2. 그분은 육체되심과 포함과 강화라는 그분의 신성하고 비밀한 세 단계의 사역으로 교회들을 보양하시기 위해 그분의 가슴에 있는 금 띠로 상징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신다 — 계 1:13, 요 1:14, 고전 15:45 하, 계 4:5, 5:6.
- B.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을 짊어진 것과 똑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어깨(그분의 능력) 위에 우리를 짊어지고 계시며 그분의 가슴(그분의 사랑) 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 출 28:9-10, 12, 21, 29.
1. 그분은 "공활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히 2:17),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다(히 4:15).
 2.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셔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 많은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며 어떤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대제사장이신 주님만이 그 이유를 아시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돌봄은 항상 긍정적이다 — 롬 8:28-29.
- C.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권익을 돌보신다.
1.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 왕상 8:48, 단 6:10.
 2.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야 한다 — 엡 5:32, 6:17-18.
- D. 승천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완결로서 영원토록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확장과 확대와 증가와 표현이 될 것이다 — 계 21:2, 9-11.